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the *Junzhai-Dushuzhi*

리 상 용 (Lee, Sang-Yong)*

◁ 목 차 ▷

- | | |
|----------------------------------|-------------------------|
| 1. 서론 | 2.4 저작역할어(著作役割語) 표시 |
| 2.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 수록
저록의 목록기술 | 2.5 저작년 표시 |
| 2.1 표제 표시 | 2.6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 |
| 2.2 권수 표시 | 3. 결론 |
| 2.3 저자 표시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논문은 중국 남송(南宋)의 조공무(晁公武, 1105~1180)가 중국 목록학사상 최초로 해제를 붙여 편찬한 사가장서목록(私家藏書目錄)인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목록기술은 표제, 권수, 저자, 저작역할어, 저작년, 기타 특기할 만한 목록기술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군재독서지』는 나름대로 통일성을 갖춘 목록기술방식을 설정하여 저록을 작성하였으며, 12세기에 개인이 편찬한 목록임을 감안할 때, 당시로서는 비교적 체계적인 목록기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要語: 남송(南宋), 조공무(晁公武),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 목록기술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syly@ewha.ac.kr)

접수일: 2015년 9월 7일 최초심사일: 2015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9월 20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thod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Junzhai-Dushuzhi* (郡齋讀書志) which is the first annotated bibliography for personal book collection and printed by Chao Gongwu (晁公武), the Southern Song Dynasty.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was examined in respect to title, volume number, author, published date, word of authorship function, and notable examples. As taking it into consideration that *Junzhai-Dushuzhi* was compiled by an individual in the 12th century, the significance of the bibliography was found in the fact that it established entries for annotated works based on relatively unified method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for that period.

Key words: Bibliographical description, Chao Gongwu, *Junzhai-Dushuzhi*

1. 서론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는 중국 남송(南宋)의 저명한 목록학자(目錄學者)이자 대장서가(大藏書家)인 조공무(晁公武, 1105~1180)가 당시 남양(南陽)의 대장서가인 정헌맹(井憲孟)에게 받은 서적과 자신의 가장서적(家藏書籍) 가운데 복본을 추출하여 24,500여권 1,459부를 대상으로 1151년(紹興 21)에 편찬한 사분법 해제목록이다.¹⁾

이 「군재독서지」는 중국 목록학사상 최초로 해제를 붙인 사가장서목록(私家藏書目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송나라 이전의 주요 전적(典籍)을 수록하고, 특히 당나라와 북송시기의 전적을 잘 정리하여 여러 방면에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사가목록의 보배라고 할 수 있겠다.²⁾ 또한 이 「군재독서지」는 조공무가 직접 보고 검증한 서적을 수록하였으며, 해제의 내용은 신뢰할 만하고 비교적 높은 사료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지녔다. 진진손(陳振孫)은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의 편찬 시 이 「군재독서지」의 그 체례를 답습했으며, 그 해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도 있었다. 남송말년의 유명한 왕응린(王應麟)의 「곤학기문(困學紀聞)」과 「옥해(玉海)」에도 상당히 인용되었으며,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의 편찬 시에 근거 자료로 삼을 정도로 중국 목록학사 상에서 「군재독서지」의 위치는 확고하며, 후대 목록의 편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³⁾

「군재독서지」의 판본은 원주본(袁州本)과 구주본(衢州本)의 2종류가 있다.⁴⁾ 원주본(袁州本)은 조공무의 문인 두거봉(杜舉鵬)이 촉(蜀)에서 교간(校刊)한 4권

- 1) 晁公武, 郡齋讀書志原序(欽定四庫全書, 史部, 郡齋讀書志, 臺灣: 商務印書館, 1986). 孟昭晉, “晁公武及其「郡齋讀書志」,” 『山東圖書館季刊』 2(1988. 7), 16. 徐元南, “송대 문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해서 본 사가목록서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47(2007. 12), 506.
- 2) 張素霞, “宋代私家書目「郡齋讀書志」考析,” 『前沿』 7(2005. 7), 219.
- 3) 金光洙, “井度、趙希弁對「郡齋讀書志」的貢獻,” 『河南圖書館學刊』 4(31)(2011. 8), 138.
- 4) 方誌昭, “晁公武與「郡齋讀書志」,” 『贛圖通訊』 1(1985. 4), 50. 孟昭晉, “晁公武及其「郡齋讀書志」,” 『山東圖書館季刊』 2(1988. 7), 16-17. 徐元南, “송대 문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해서 본 사가목록서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47(2007. 12), 506-507.

본에 의거한 책을 말하며, 구주본(衢州本)은 조공무의 문인인 요응적(姚應績)이 같은 시기에 4권본을 저본으로 하여 자신의 소장서에 기록되었던 독서기를 증보하여 판각한 20권본에 의거한 책을 말한다. 원주본은 오랫동안 세상에 전해지지 않다가 청나라 강희(康熙) 61년 해녕(海寧)의 진사증(陳師曾)이 구조원본(舊鈔袁本)을 얻어서 간행하여 세간에 유통되었으며, 후에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수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사고전서』에 수록된 원주본(袁州本)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구주본(衢州本)과 비교했을 경우 차이가 있다.

이 원주본(袁州本)의 분류체계는 경부(經部), 사부(史部), 자부(子部), 집부(集部)로 구성된 사부분류법을 채용하였다. 경부는 역류(易類), 서류(書類), 시류(詩類) 등 10개, 사부는 정사류(正史類), 편년류(編年類), 실록류(實錄類) 등 13개, 자부는 유가류(儒家類), 도가류(道家類), 법가류(法家類) 등 16개, 집부는 초사류(楚辭類), 별집류(別集類), 총집류(總集類) 등 4개, 총 43개의 유목으로 구성되었다. 경사자집의 제1분지인 부(部)에는 총론(總論)을 두었으며, 제2분지인 유(類)의 경우, 각 유목의 첫 번째 저록의 해제를 기술한 다음 유서(類序) 성격을 지닌 글을 쓴 경우가 있었다.

12세기에 편찬된 조공무의 『군재독서지』가 국내에 유입된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서형수(徐滢修, 1749~1824)의 『명고전집(明阜全集)』⁶⁾, 정조(正祖, 1752~1800)의 『홍재전서(弘齋全書)』⁷⁾,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⁸⁾, 서유구(徐有渠, 1764~1845)의 『풍석전집(楓石全集)』⁹⁾,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경세유표(經世遺表)』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¹⁰⁾,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완당전집(阮堂全集)』¹¹⁾, 이규경(李圭景,

5) 晁公武, 『郡齋讀書志』(欽定四庫全書, 臺灣: 商務印書館, 1986).

6) 徐滢修, 『明阜全集』卷12, 對策, 載籍對

7) 正祖, 『弘齋全書』卷161, 日得錄1, 文學1

8) 成海應, 『研經齋全集外集』卷22, 總經類

9) 徐有渠, 『楓石全集』, 金華知非集 卷10 策對 十三經對

10) 丁若鏞, 『經世遺表』卷15, 夏官修制, 武科

丁若鏞, 『與猶堂全書』1集, 卷25, 小學珠串, 七書

11) 金正喜, 『阮堂全集』卷1, 辨, 尙書今古文辨 下

1788~1863)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¹²⁾ 등 조선 후기 여러 학자의 저작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학자들과 호서가들에게 널리 열람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 「군재독서지」에 대한 연구동향을 보면, 국내 연구로는 서남원이 송대의 사가목록(私家目錄)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군재독서지」의 판본, 분류와 체례, 목록학 방법의 공헌에 대해 살펴보았으며¹³⁾, 중국 연구로는 「군재독서지」의 해제를 비롯해서 그의 교감학, 판본학, 목록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나왔으나¹⁴⁾,

-
- 1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經史篇3, 釋典類1, 釋典總說
- 13) 徐元南, “송대 문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해서 본 사가목록서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47(2007. 12), 499-521.
- 14) 顧宏義, “郡齋讀書誌訂正(1),” 『中華文史論叢』 99(2010. 3), 394.
 顧宏義, “郡齋讀書誌訂正(2),” 『中華文史論叢』 100(2010. 4), 64.
 顧宏義, “郡齋讀書誌訂正(3),” 『中華文史論叢』 100(2010. 4), 104.
 高 蕾, “晁公武「郡齋讀書誌」解題特點及影響—「衢本郡齋讀書誌」讀後有感,” 『青年文學家』 16(2012. 8), 16.
 龔禮明, “「郡齋讀書誌」收錄小說類書目摭議,” 『圖書館論壇』 5(1993. 10), 95-97.
 郭書蘭, “私家目錄之璧—晁公武「郡齋讀書誌」,” 『鄭州大學學報』 5(1988. 4), 104-107, 117.
 金光洙, “井度、趙希弁對「郡齋讀書誌」的貢獻,” 『河南圖書館學刊』 4(31)(2011. 8), 138-139.
 滕 慶, “試析晁公武「郡齋讀書誌」的編纂特色,” 『河南大學學報』 5(42)(2002. 9), 106-109.
 孟昭晉, “晁公武及其「郡齋讀書誌」,” 『山東圖書館季刊』 2(1988. 7), 16-18.
 倪士毅, “宋代目錄學家晁公武和「郡齋讀書誌」,” 『杭州大學學報』 3(1980. 9), 18-21.
 方誌昭, “晁公武與「郡齋讀書誌」,” 『贛圖通訊』 1(1985. 4), 49-53.
 孫 猛, “「郡齋讀書誌」淺談,” 『中國索引』 2(4)(2006. 6), 19-22.
 孫月霞, “「郡齋讀書誌」子部與集部類目的設置,” 『黑龍江史誌』 17(330)(2014. 9), 10-11.
 孫月霞, “淺議「郡齋讀書誌」類序特點,” 『黑龍江史誌』 16(209)(2009. 8), 64, 66.
 楊大忠, “論「郡齋讀書誌」辨偽證據的互補性,” 『古籍研究』 55-56(2009), 344-354.
 楊大忠, “論「郡齋讀書誌」的類中類體例,” 『淮北煤炭師範學院學報』 4(30)(2009. 8), 5-9.
 吳承學, 黃靜, “「郡齋讀書誌」與文學批評,” 『華東師範大學學報』 1(2015. 1), 1-13.
 王曉鳴, “淺談「郡齋讀書誌」,” 『山東圖書館季刊』 2(2001. 6), 47-48.
 牛紅亮, “宋代目錄學家晁公武和他的「郡齋讀書誌」,” 『圖書館理論與實踐』 5(2000. 10), 53-54.
 劉國珺, “淺論「郡齋讀書誌」在古籍版本學史上的貢獻,” 『古籍整理研究學刊』 6(1990. 12), 29-32.
 張 劍, “晁公武及其「郡齋讀書誌」研究綜述,” 『西北師大學報』 5(42)(2005. 9), 97-102.
 張素霞, “宋代私家書目「郡齋讀書誌」考析,” 『前沿』 7(2005. 7), 219-221.
 田艷艷, “晁公武「郡齋讀書誌」創新目錄學之功,” 『河南圖書館學刊』 6(30)(2010. 12), 161-

여기에 수록된 저록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조공무(晁公武)는 「군재독서지」에서 수록된 개개 저작에 대해 나름대로 체계적인 목록기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군재독서지」에 수록된 서적을 대상으로 그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고구하고자 한다.

2.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 수록 저록의 목록기술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이하 「독서지」라 함)의 각 저록(著錄)의 기입(記入)은 동양의 전통적인 목록기술법인 서명주기입법(書名主記入法)을 취하고 있다. 자부(子部) 유가류(儒家類)에 수록된 「설원(說苑)」의 목록기술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說苑 二十卷

右漢劉向撰 以君道 臣術 建本 立節 貴德 復恩 政理 尊賢 正諫 法誠 善說 奉使 權謀 至公 指式 談叢 雜言 辨物 修文爲目 鴻嘉四年上之 闕第十三卷 曾子固校書 自謂得十五篇於士大夫家 與崇文舊書五篇 合爲二十篇 而敘之 然止是析十九卷 作修文上下篇耳

162, 168.

錢振新, “「郡齋讀書志」收錄小說類書目摭議,” 『圖書館』 2(1994. 4), 22-24.

晁 霞, “晁公武書論選目考—以「郡齋讀書志」爲中心,” 『圖書館學刊』 12(2014. 12), 120-123.

陳少川, “從「郡齋讀書志」看晁公武的圖書分類理論,” 『圖書館論壇』 4(1993. 8), 42-45.

崔廣洲, “論「郡齋讀書志」與「直齋書錄解題」中宋代「春秋」學,” 『重慶與世界』 3(31)(2014. 3), 51-54.

崔國光, “晁公武「郡齋讀書志」的版本源流和解題特點,” 『山東社會科學』 4(2001. 9), 63-65.

賀 霞, “略論晁公武「郡齋讀書志」在目錄學上的貢獻,” 『圖書館建設』 2(1997. 3), 68-69.

郝潤華, 丁俊麗, “「四庫全書總目」對「郡齋讀書志」的接受與批評,” 『圖書館雜誌』 8(29)(2010. 8), 72-77.

胡建升, “晁公武「郡齋讀書志」的經學思想,” 『社會科學家』 9(173)(2011. 9), 52-56.

胡建升, “晁公武「郡齋讀書志」的史學思想,” 『史學史研究』 4(140)(2010. 4), 33-38.

黃燕婉, “「四庫全書總目」誤引「郡齋讀書志」訂正十則,” 『圖書館工作與研究』 138(2011. 5), 83-85.

위의 예를 분석하면, ‘說苑’은 표제, ‘二十卷’은 권수, ‘右’는 해당 서명을 지칭하는 지시어, ‘漢’은 저자의 소속왕조, ‘劉向’은 저자명, ‘撰’은 저작역할어, ‘以君道 臣術 … 作修文上下篇耳’는 해제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독서지」에 수록된 저록의 기술 요소는 표제, 권수, 지시어, 저자의 소속왕조, 저자명, 저작역할어, 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⁵⁾ 여기에서는 이들 서지적 기술 사항 중에서 지시어 ‘右’와 해제¹⁶⁾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의 목록기술방식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표제표시

「독서지」에서 기술한 일반적인 표제표시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李氏集解 十卷 右唐李鼎祚集解¹⁷⁾
穆天子傳 六卷 右晉太康二年 汲縣民盜發古冢所得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어제서(御製書) 또는 어찬서(御撰書)인 경우 ‘어주(御注)’라는 관제(冠題)를 서명 앞에 관기(冠記)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예:

御注를 冠記한 경우:

御注老子 二卷 徽宗皇帝御製

御注를 冠記하지 않은 경우:

聖宋茶論 一卷 右徽宗御製
神武秘畧 十卷 右皇朝仁宗御撰

15) 이들 요소 외에 오늘날의 발행사항과 유사한 저작의 발표년도를 표시한 경우가 간혹 나오는데, 이는 특수 사례로 판단하여 여기에서는 요소로 설정하지 않고, 저작년 표시라는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여 기술하였다.

16) 목록기술요소의 분석과정에서 일부 해제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17) 원문에는 서명과 권차를 표시하고, 행을 달리하여 그 외의 목록기술요소를 표시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한 줄로 기술하였다.

서명은 동일한데 저자가 다를 경우 그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서명 앞에 저자명을 부기해서 서명을 표시한 사례가 있으며,

예:

荀悅漢紀 三十卷 右漢荀悅撰
袁宏漢紀 三十卷 右晉袁宏彥伯

간혹 해제에서 세간에 통용되는 서명에 대해 ‘或題’를 관기하여 또 다른 이름의 서명을 알려주거나, 거기에 대해 평가한 경우가 있다. 그 외에 표제표시에 있어서 그리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다.

예:

山海經圖 十卷 右皇朝舒雅等撰 … 閩中刊行本 或題曰 張僧繇畫 安也
郡閣雅言 一卷 右皇朝潘若同撰 … 或題曰 郡閣雅談

2.2 권수표시

권수표시는 완질(完帙)의 권수를 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권수(卷數)는 물리적 권수, 즉 책수(冊數)가 아니라 서지적 권수를 말하는 것이다.

예:

尙書正義 二十卷
東坡論語解 十卷
說文解字 三十卷

권수의 표시에서 두 권으로 이루어진 경우 ‘二卷’이 아닌 ‘兩卷’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다.

예:

明皇幸蜀記 兩卷
非國語 兩卷

2.3 저자표시

2.3.1 저자의 소속왕조표시

저자의 소속왕조표시는 일반적으로 저자명 앞에 역조(歷朝) 단위로 표시하고 있는데,

예:
墨子 五十卷 右宋墨翟撰
呂氏春秋 二十六卷 右秦呂不韋撰 後漢高誘注
毛詩正義 四十卷 右唐孔穎達等撰

때때로 역조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으며,

예:
比丘尼傳 四卷 右蕭梁僧寶唱撰
金剛經會解 一卷 右後秦僧鳩摩羅什譯
鼎國詩 三卷 右後唐李雄撰

정통왕조가 아닌 경우에는 왕조 앞에 거짓이라는 의미의 ‘僞’자를 붙여서 표시한 경우도 있고,

예:
格言 五卷 右僞唐韓熙載叔言撰
續本事詩 二卷 右僞吳處常子撰 未詳其人

「독서지」가 편찬된 시기인 송나라 때 간사된 서적의 경우 대개 저자명 앞에 ‘皇朝’라고 관기하였다.

예:
溫公易說 一卷 右皇朝司馬光君實撰
歐陽詩本義 十五卷 右皇朝歐陽修永叔撰
新經周禮義 二十二卷 右皇朝王安石介甫撰

저자의 소속왕조가 불분명한 경우 저자명 다음에 ‘未詳何代人’, ‘未詳何代’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하였으며,

예:
會元經 二十四卷 右孫季邕撰 未詳何代人
徐注西昇經 二卷 右徐道邈撰 句曲人 未詳何代

아예 저자의 소속왕조를 표시하지 않고 생략한 경우도 있다.

예:
河上公注道德經 二卷 右李耳撰
莊子南華真經 十卷 右莊周撰 晉郭象注

2.3.2 저자명표시

저자명표시는 표제와 권수표시를 한 다음에 행을 달리하여 기술하고 있다.¹⁸⁾ 각 저작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자표시를 하는데, 대개 ‘성(姓)+명(名)+자(字)’의 형식으로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이 있다.

예:
非國語 兩卷
右唐柳宗元子厚撰
橫渠易說 十卷
右皇朝張載子厚撰
東坡論語解 十卷
右皇朝蘇軾子瞻撰

이 때, 간혹 ‘字’를 관기하여 자(字)를 표시한 경우도 있다.

예:
馮氏春秋通解 十二卷 右皇朝馮山字允南撰
劉長卿集 十卷 右唐劉長卿字文房

동일 유목에서 동일 저자의 저작을 해제할 경우, 첫 저록은 ‘성(姓)+명(名)+자(字)’의 형식으로 기술하고, 두 번째 저록은 ‘자’를 생략한 경우도 있는데, 모든 저록에 대해 이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예:
易類의 예:
劉長民易 十五卷 右皇朝劉牧長民撰
鉤隱圖 三卷 右劉牧撰

18) 이 용례의 경우, 용이한 설명을 위하여 원전과 동일하게 행을 달리해서 기술하였다.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독서지」에서는 이 사례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들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명(姓+名)’의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있다.

예:
韓詩外傳 十卷 右漢韓嬰撰
漁樵對問 一卷 右皇朝張載撰

2) 여타 목록과는 달리, 관직명이나 관작명은 주로 저자명을 표시한 다음에 해제에서 기술하고 있다.

예:
書義辯疑 一卷 右皇朝楊時中立撰 … 時仕至禮部侍郎
風俗通義 十卷 右漢應劭撰 … 仕至泰山太守

간혹 저자명 앞에 관직명이나 관작명을 표시한 사례가 드물게 보이는데, ‘관직 또는 관작명+성+명+자(官職 또는 官爵名+姓+名+字)’의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있으며,

예:
王弼周易 十卷 右上下經 魏尚書郎王弼輔嗣注
茶經 三卷 右唐太子文學陸羽鴻漸撰

‘관직명+출신지+성+명(官職名+出身地+姓+名)’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다.

예:
蔡邕獨斷 二卷 右漢左中郎將陳留蔡邕

3) 어찬서(御撰書)와 어제서(御製書)의 경우 대개 ‘묘호(廟號), 묘호+황제(廟號+皇帝)’ 등의 방식으로 표시했으며,

예:
老子疏 六卷 右唐玄宗撰
神宗皇帝御集 二百卷 右本朝神宗皇帝撰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인 측천무후(則天武后)가 편찬한 서적에 대해서는 다른 황제와는 달리 성(姓) 다음에 ‘氏’자를 붙였는데, 아마도 측천(則天)이

국호를 주(周)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던 만큼 정통 황제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예: 臣範 二卷 右唐則天皇后武氏撰

이밖에 정통왕조의 황제가 아닌 경우 ‘主’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저자를 설명한 경우도 있다.

예: 李煜集 十卷 右僞唐主李煜重光也

4) 명찬서의 경우 ‘신하명+봉조 또는 봉칙 또는 피지+저작역할어(臣下名+奉詔 또는 奉勅 또는 被旨+著作役割語)’, ‘신하명+등+연호+중+봉조 또는 피지+저작역할어(臣下名+等+年號+中+奉詔 또는 被旨+著作役割語)’, ‘연호+중+신하명+등+피조+저작역할어(年號+中+臣下名+等+被詔+著作役割語)’, ‘연호+연차+신하명+승조+저작역할어(年號+年次+臣下名+承詔+著作役割語)’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예: 臣下名+奉詔 또는 奉勅 또는 被旨+著作役割語:

唐餘錄 六十卷 右皇朝王皞奉詔撰
投壺經 一卷 右唐上官儀奉勅刪定
胡氏春秋傳 三十卷 右皇朝胡安國被旨撰

臣下名+等+年號+中+奉詔 또는 被旨+著作役割語

禮記疏 七十卷 右唐孔穎達等 貞觀中奉詔撰
紹興勅 十二卷 令 五十卷 格 三十卷 式 三十卷 政和三年以後敕 十五卷
右皇朝張守等 紹興中被旨編修

年號+中+臣下名+等+被詔+著作役割語

新唐書 二百二十五卷 右皇朝嘉祐中 曾公亮等被詔刪定

年號+年次+臣下名+承詔+著作役割語

中書備對 十卷 右皇朝元豐三年 畢仲衍承詔編次

또한 서술어를 추가하여, ‘연호+조+신하명+등+서술어(年號+詔+臣下名+等+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敍述語), ‘연호+연차+조+신하명+서술어(年號+年次+詔+臣下名+敍述語)’ 등의 형식으로 기입한 경우도 있고,

예:

年號+詔+臣下名+等+敍述語

太平廣記 五百卷 右皇朝太平興國初 詔李昉等取古今小說編纂成書

年號+年次+詔+臣下名+敍述語

冊府元龜 一千卷 右皇朝景德二年 詔王欽若楊億修君臣事迹 唯取六經子史 不錄小說雜書

이밖에 저자표시를 먼저 해 준 다음에 해제에서 명찬서임을 밝혀준 경우가 있다.

예:

江南錄 十卷 右皇朝徐鉉等撰 鉉等自江南歸朝 奉詔撰集李氏時事

武經聖畧 十二卷 右皇朝王洙撰 寶元中 西邊用兵 朝廷講武備 是時 洙奉

詔編祖宗任將用兵邊防事迹 分十二門

5) 저자명 앞에 ‘布衣’를 관기한 경우가 있으며,

예:

陰符經 一卷 右唐少室山布衣李筌注

그 인물에 걸맞게 ‘道士’ 또는 ‘仙翁’이란 단어를 관기한 경우도 있다.

예:

韋注西昇經 二卷 右梁道士韋處玄

葛仙翁胎息術 一卷 右仙翁葛洪也

6) 승려가 저술한 서적인 경우, 저자명 앞에 승려를 뜻하는 ‘僧’ 또는 ‘釋’ 또는 ‘僧釋’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

高僧傳 六卷 右梁僧惠敏撰

英公字源 一卷 右皇朝釋夢英撰

廣弘明集 三十卷 右唐僧釋道宣撰

이밖에 불교 최고의 이상(理想)인 불타 정각의 지혜를 말하는 ‘菩提’란 칭호를 붙인 경우도 있다.

예:

觀心論 一卷 右魏菩提達磨撰

7) 저자명표시를 서술형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다.

예:

伊川詩說 兩卷 右皇朝程正叔門人記其師所談之經也
伊川論語說 十卷 右皇朝程頤正叔之門人記其師所解論語也
史記 一百三十卷 右漢太史令司馬遷續其父談書
吳氏西齋目 一卷 右唐吳兢錄其家藏書
傅公嘉話 一卷 右皇朝傅堯俞之子孫記堯俞之言行
斷金集 一卷 右唐令狐楚韓琪與李逢吉酬唱詩什

8) 여성 저작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표시를 하고 있는데, 모인(某人)의 딸이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으며,

예:

李易安集 十二卷 右皇朝李氏格非之女

성명을 적은 다음에 그가 특별히 좋아하는 여인이란 의미의 ‘愛姬’를 부기하고, 모씨(某氏)의 딸이라고 부연 설명한 경우가 있다.

예:

花藥夫人詩 一卷 右蜀孟昶愛姬也 青城費氏女

9) 저자명 자리에 호를 표시한 경우, 편찬시기를 표시한 경우 등이 있다.

예:

호를 표시한 경우:

忘懷錄 三卷 右皇朝元豐中夢溪丈人撰
鬼谷子 三卷 右鬼谷先生撰 按史記 戰國時隱居潁川陽城之鬼谷 因以自號

편찬시기를 표시한 경우:

諸路將官通用勅 二十卷 右皇朝崇寧中修

10) 저자명이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경우, 기존 저자명에 대해 세간에 전해지는 논의를 해제에서 밝힌 경우도 있고,

예:

周易流演 五卷 右唐成玄英撰 … 或云釋仁英撰 未知孰是
毛詩草木鳥獸蟲疏 二卷 右吳陸璣撰 或題曰陸機 非也
洽聞記 三卷 右唐鄭常撰 … 或題曰鄭遂

일단, 저자표시를 한 다음 ‘其姓名未詳’, ‘未知其名’, ‘不著名’ 등을 부기하여 그 저자의 성명 또는 이름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덧붙인 경우도 있으며,

예:
洞玄[실은 玄]注西昇經 四卷 右唐洞玄[실은 玄]子注 其姓名未詳
合元萬分曆 一卷 右唐曹氏撰 未知其名
麗則集 五卷 右唐李氏撰 不著名

이밖에 명(名)과 자(字)의 사이의 모르는 부분에 작은 글자로 ‘闕’자를 쓴 경우도 있다.

예:
藏寂軒 文藁 右皇朝董 闕 字 闕

11) 저자 또는 편자 미상인 경우, ‘不題撰人’과 ‘未詳撰人’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밖에 ‘不著撰人’, ‘未詳何人撰’, ‘不著撰人姓名’, ‘未詳撰人名氏’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예:
史話 三卷 右不題撰人
寶曆歌 一卷 右未詳撰人
千姓編 右不著撰人
衣冠嘉話 一卷 右未詳何人撰
春秋世系 一卷 右不著撰人姓名
小兒玉訣 一卷 右未詳撰人名氏
補江總白猿傳 一卷 右不詳何人撰
蕃爾雅 一卷 右不載撰人姓名
詹玠將歸集 一卷 右未詳何人
史館故事 三卷 右不題撰人姓名

그 표현을 ‘未詳何人所纂’, ‘未詳何人所撰’, ‘未知何人所撰’ 등 서술형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고,

예:
琵琶故事 一卷 右未詳何人所纂
紹運圖 一卷 右未詳何人所撰
五音會元圖 一卷 右未知何人所撰

저자 또는 편자 미상인 경우, ‘疑’ 또는 ‘某人云’을 관기하여 찬자로 짐작되는 저자를 밝힌 경우도 있다.

예:

汲世論 一卷 右未詳何人所著 … 疑呂氏書也
春秋公羊疏 三十卷 右不著撰人 李獻民云徐彥撰

2.4 저작역할어(著作役割語)표시

저작역할어는 ‘撰’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밖에 ‘纂’, ‘注’, ‘編’, ‘集’, ‘書’, ‘補注’, ‘集注’, ‘編次’, ‘校定’, ‘重修’, ‘語’, ‘筆授’, ‘譯’, ‘解’, ‘集解’, ‘編修’, ‘刪定’, ‘傳’, ‘學’, ‘述’, ‘撰次’, ‘敘錄’ 등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다.

예:

西京雜記 二卷 右晉葛洪撰
大戴禮記 十三卷 右漢戴德纂
尚書大傳 三卷 右秦伏生勝撰, 鄭康成注
編禮 三卷 右皇朝呂大臨與叔編
鐘鼎篆韻 七卷 右皇朝薛尚功集
石經毛詩 二十卷 僞蜀張紹文書
補注神農本草 二十卷 右皇朝掌禹錫等補注
五臣注文選 三十卷 右唐呂延祚集注
樂府詩集 一百卷 右皇朝郭茂倩編次
山海經 十八卷 右大禹製 晉郭璞傳 漢侍中奉車都尉劉秀校定
戚苑英華 十卷 右唐袁悅重修
會解楞嚴經 十卷 右唐僧彌伽釋迦譯語 房融筆授
金剛經會解 一卷 右後秦僧鳩摩羅什譯
六祖解心經 一卷 右唐僧慧能解
論語 十卷 右魏何晏集解
紹興勅 十二卷 令 五十卷 格 三十卷 式 三十卷 政和三年以後赦 十五卷
右皇朝張守等 紹興中被旨 編修
投壺經 一卷 右唐上官儀奉勅刪定
元經 十卷 右隋王通撰 唐薛收傳 皇朝阮逸學
仲景傷寒論 十卷 右漢張仲景述 晉王叔和撰次
王子年拾遺記 十卷 右梁蕭綺敘錄

이밖에 저작역할어를 서술적 문장형태로 기술한 경우가 있는데, ‘所撰’, ‘所著’, ‘所纂’, ‘所上也’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예:
富公語錄 一卷 右皇朝富弼使虜時所撰
續事始 五卷 右僞蜀馮鑑廣孝孫所著
琵琶故事 一卷 右未詳何人所纂
金人節要 一卷 右陷金人所上也

또한 명사형과 서술형 저작역할어를 혼합하여 표시한 경우도 있다.

예:
智永千字文 一卷 右梁周興嗣撰 釋智永所書
名家類尹文子 二卷 右周尹文撰, 仲長氏所定

특징적인 사항은 별집류(別集類)에서 저작역할어 표시를 대부분 생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
蔡邕集 十卷 右漢蔡邕伯喈
曹植集 一卷 右魏曹植子建也

2.5 저작년표시

이 저작년표시는 저자의 소속왕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특이한 사항이다. ‘저자의 소속왕조표시’는 대개 저자명 앞에 역조(歷朝)를 단위로 표시한 것(상기 2.3.1 참조)으로 저자에 대한 설명인데 비해, 이 저작년표시는 그 연도가 저자에 대한 설명이 아닌 책 자체에 대한 내용, 즉, 책의 발행년과 같은 성격을 띤 발표시점 또는 공표시점을 표시한 사례인 것이다. 이 경우 대개 역조명 대신 연호로 표시하고 있다. 이 저작년표시는 저자명 다음에 표시한 경우도 있고, 저자명 앞에 표시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저작년을 저자명 다음에 표시한 경우는 저자명을 표시한 다음에 연호를 부기하여 그 발표시점을 알려 준 사례를 말한다.

예:

宋書 一百卷 右梁沈約撰 十本紀 三十志 六十列傳 齊永明中 約奉詔爲是書
東齋記 十卷 右皇朝范鎮景仁 元豐中撰
周越書苑 十五卷 右皇朝周越撰 越以善書名世 天聖八年四月成此書奏御

저작년을 저자명 앞에 표시한 경우는 저자명 앞에 연호를 관기하여 저작의 발표 년도를 표시한 사례를 말한다.

예:

湘山野錄 四卷 右皇朝 熙寧中 僧文瑩撰
雲齋廣錄 十卷 右皇朝 政和中 李獻民撰
圓覺經疏 三卷 右唐長壽二年 天竺僧覺救譯 宗蜜疏解

2.6 기타 특기할 만한 목록기술 사례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 외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기할 만한 목록기술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2.6.1 공저자의 목록기술

1) 공저자인 경우, 주로 대표저자명을 표시한 다음에 ‘등+저작역할어(等+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가 가장 많고,

예:

尙書正義 二十卷 右孔穎達等撰
雲笈七籤 一百二十卷 右皇朝張君房等纂
補注神農本草 二十卷 右皇朝掌禹錫等補注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등+저작역할어(等+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다.

예:

唐六典 三十卷 右唐玄[실은 玄]宗撰 李林甫 張說等注

2)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與’자를 삽입하여 두 저자명을 병기한 다음 그 이외의 공저자를 표시하고, 마지막에 ‘等同撰’이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다.

예:
周易正義 十四卷 右唐國子祭酒孔穎達與顏師古 司馬才章 王恭 馬嘉運 趙乾叶 王談 于志寧等同撰

3) 이밖에 ‘等’자를 쓰지 않고,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저작역할어를 붙이거나, 서술형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다.

예:
尙書解 十四卷 右皇朝顧臨 蔣之奇 姚闢 孔武仲 劉敞 王會之 周範 蘇子才 朱正夫 吳牧所撰
五臣解孟子 十四卷 右皇朝范祖禹 孔武仲 吳安詩 豐稷 呂希哲 元祐中 同在經筵所進講義

2.6.2 저작역할이 다른 두 종 이상의 저자표시

저작역할이 다른 저자표시가 두 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된 역할의 것을 먼저 적고 부차적 역할의 것을 뒤에 적고 있다.

예:
尙書大傳 三卷 右秦伏生勝撰 鄭康成注
元經 十卷 右隋王通撰 唐薛收傳

2.6.3 동일 유목에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저작이 나온 경우

동일 유목 내에 동일 저자의 독립된 저작이 두 개 이상 나왔을 때, 하나의 저록으로 설정하고, 그 서적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열기한 다음 저자표시를 한 경우가 있는데,

예:
周易緯稽覽圖 二卷 周易緯是類謀 一卷 周易緯辨終備 一卷 周易緯乾元敘制記 一卷 周易緯坤靈圖 一卷 易通驗卦 二卷 右漢鄭玄注

이 때 저자 앞에 ‘右 몇書皆’ 또는 ‘右皆’라고 표시한 다음에 저자표시를 한 경우가 있으며,

예: 太淸服氣口訣 一卷 太起經 一卷 閉氣法 一卷 太上指南歌 一卷 右四書
皆題曰老子撰
景命萬年錄 一卷 藝祖受禪錄 一卷 右皆未詳撰人

그 서적들을 별개의 저록으로 설정한 다음 각각 저자표시를 한 경우도 있다.

예: 禮類:
周禮義辨疑 一卷 右皇朝楊時中立撰
楊中立中庸解 一卷 右皇朝楊時中立撰

釋書類:
辨正論 八卷 右唐釋法琳撰
破邪論 二卷 右唐釋法琳撰

2.6.4 특정서적의 후집(後集)이나 속집(續集) 또는 별집(別集)이 나온 경우

특정서적과 관련된 후집(後集)이나 속집(續集) 또는 별집(別集)과 같이 보유적 성격을 띤 저작이 나오는 경우, 한꺼번에 모아서 저자표시를 한 경우가 있으며,

예: 蘇子由欒城集前集 五十卷 後集 二十四卷 第三集 十卷 應詔集 二十卷
右皇朝蘇轍子由 洵之次子也
呂與叔玉溪集 二十五卷 玉溪別集 一十卷 右皇朝呂大臨字與叔 汲公季弟也
劉禹錫夢得集 三十卷 外集 十卷 右唐劉禹錫夢得也

별도의 저자표시는 하지 않고, 해제에서 해당 저작에 대해 설명해 준 경우도 있다.

예: 李翰林集 二十卷 右唐李白太白也 白舊集十卷 唐李陽冰序 咸平中 樂史
別得白歌詩十卷 凡歌詩七百七十六篇 又纂雜著 爲別集十卷
白居易長慶集 七十一卷 右唐白居易樂天 … 前集五十卷 有元稹序 後集
二十卷 自爲序紀 又有續後集 五卷 今亡三卷矣

3. 결 론

본 논문은 중국 남송(南宋)의 대장서가이자 목록학자인 조공무(晁公武, 1105~1180)가 사부분류법에 의거하여 편찬한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의 각 저록(著錄)에 기술된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서지」의 각 저록의 기입(記入)은 서명주기입법(書名主記入法)을 취하였다. 각 저록의 서지적 기술 요소는 표제, 권수, 서명을 지칭하는 대명사, 저자의 소속왕조, 저자명, 저작역할어, 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서지적 기술 사항 중에서 해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의 목록기술방식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제표시는 어제서(御製書) 또는 어찬서(御撰書)에 대해 ‘어주(御注)’라는 관제(冠題)를 서명 앞에 관기(冠記)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서명은 동일한데 저자가 다를 경우 그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서명 앞에 저자명을 부기해서 서명을 표시한 사례가 있었고, 간혹 해제에서 세간에 통용되는 서명에 대해 ‘或題’를 관기하여 또 다른 이름의 서명을 알려주거나, 거기에 대해 평가한 경우가 있었다.

권수표시는 물리적 권수, 즉 책수(冊數)가 아니라 서지적 권수 표시를 의미하는데, 완질(完帙)의 권수를 표시하였다. 권수의 표시에서 두 권으로 이루어진 경우 ‘二卷’이 아닌 ‘兩卷’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저자표시는 저자의 소속왕조표시와 저자명표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저자의 소속왕조표시는 일반적으로 저자명 앞에 역조(歷朝) 단위로 표시하였다. 후진(後秦), 후당(後唐)처럼 역조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한 경우와 위당(僞唐), 위오(僞吳)처럼 비 정통왕조에 대해 거짓이라는 의미의 ‘僞’자를 붙인 경우도 있었다. 「독서지」가 편찬된 시기인 송나라 때 간사된 서적에 대해서는 대개 저자명 앞에 ‘皇朝’라고 관기하였다. 이밖에 저자의 소속왕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자명 다음에 ‘未詳何代人’, ‘未詳何代’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시하였

고, 아예 저자의 소속왕조를 표시하지 않고 생략한 경우도 있었다.

둘째, 저자명표시는 표제와 권수표시를 한 다음에 행을 달리해서 기술하였다. 각 저작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자표시를 하는데, 대개 ‘성(姓)+명(名)+자(字)’의 형식으로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이 있었다. 간혹 ‘字’를 관기하여 자(字)를 표시한 경우도 있었고, 동일 유목에서 동일 저자의 저작이 나온 경우, 첫 저록은 ‘성(姓)+명(名)+자(字)’의 형식으로 기술하고, 두 번째 저록은 ‘자’를 생략한 경우도 있었다. 『독서지』에서는 이 사례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들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명(姓+名)’의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 2) 관직명이나 관작명은 주로 저자명을 표시한 다음에 해제에서 기술하였으며, 저자명 앞에 관직명이나 관작명을 표시한 사례가 드물게 보였는데, 이때, ‘관직 또는 관작명+성+명+자(官職 또는 官爵名+姓+名+字)’, ‘관직명+출신지+성+명(官職名+出身地+姓+名)’ 등의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 3) 어찬서(御撰書)와 어제서(御製書)의 경우 대개 ‘묘호 또는 묘호+황제’의 방식으로 표시했는데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인 측천무후(則天武后)가 편찬한 서적에 대해서는 다른 황제와는 달리 성(姓) 다음에 ‘氏’자를 붙였으며, 이밖에 정통왕조의 황제가 아닌 경우 ‘主’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4) 명찬서의 경우 ‘신하명+봉조 또는 봉칙 또는 피지+저작역할어(臣下名+奉詔 또는 奉勅 또는 被旨+著作役割語)’, ‘신하명+등+연호+중+봉조 또는 피지+저작역할어(臣下名+等+年號+中+奉詔 또는 被旨+著作役割語)’, ‘연호+중+신하명+등+피조+저작역할어(年號+中+臣下名+等+被詔+著作役割語)’, ‘연호+연차+신하명+승조+저작역할어(年號+年次+臣下名+承詔+著作役割語)’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서술어를 추가하여, ‘연호+조+신하명+등+서술어(年號+詔+臣下名+等+敘述語)’, ‘연호+연차+조+신하명+서술어(年號+年次+詔+臣下名+敘述語)’ 등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었고, 이밖에 해제에서 명찬서임을 밝혀 준 경우도 있었다. 5) 저자명 앞에 ‘布衣’를 관기한 경우가 있었고, 그 인물에 걸맞게 ‘道士’ 또는 ‘仙翁’이란 단어를 관기한 경우도 있었다. 6) 승려가 저술한 서적인 경우, 저자명 앞에 승려를 뜻하는 ‘僧’ 또는 ‘釋’ 또는

‘僧釋’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밖에 불교 최고의 이상(理想)인 불타 정각의 지혜를 말하는 ‘菩提’란 칭호를 붙인 경우도 있었다. 7) 저자명표시를 서술형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었다. 8) 여성 저작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표시를 하였다. 모인(某人)의 딸이라고 표시한 경우가 있었고, 성명을 적은 다음에 특별히 총애하는 여인이란 의미의 ‘愛姬’를 부기하고 모씨(某氏)의 딸이라고 부연 설명한 경우가 있었다. 9) 저자명 자리에 호를 표시한 경우, 편찬시기를 표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 10) 저자명이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기존 저자명에 대해 세간에 전해지는 논의를 해제에서 밝히거나, 일단 저자표시를 한 다음에 ‘其姓名未詳’, ‘未知其名’, ‘不著名’ 등을 부기하여 그 저자의 성명 또는 이름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덧붙이거나, 명(名)과 자(字)의 사이의 모르는 부분에 작은 글자로 ‘闕’자를 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11) 저자 또는 편자 미상인 경우, ‘不題撰人’과 ‘未詳撰人’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밖에 ‘不著撰人’, ‘未詳何人撰’, ‘不著撰人姓名’, ‘未詳撰人名氏’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를 ‘未詳何人所纂’, ‘未詳何人所撰’, ‘未知何人所撰’ 등 서술형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

저작역할어 표시는 ‘撰’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밖에 ‘纂’, ‘注’, ‘編’, ‘集’, ‘書’, ‘補注’, ‘集注’, ‘編次’, ‘校定’, ‘重修’, ‘語’, ‘筆授’, ‘譯’, ‘解’, ‘集解’, ‘編修’, ‘刪定’, ‘傳’, ‘學’, ‘述’, ‘撰次’, ‘敘錄’ 등 다양하게 표시하였다. 이밖에 저작역할어를 ‘所撰’, ‘所著’, ‘所纂’, ‘所上也’ 등 서술적 문장형태로 기술한 경우가 있었고, 명사형과 서술형 저작역할어를 혼합하여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특징적인 사항은 별집류(別集類)에서 저작역할어 표시를 대부분 생략하였다는 점이다.

저작년표시는 저자의 소속왕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특이한 사항이었다. ‘저자의 소속왕조표시’는 대개 저자명 앞에 역조(歷朝)를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서 저자에 대한 설명인데 비해, 이 저작년표시는 그 연도가 저자에 대한 설명이 아닌 책 자체에 대한 내용, 즉, 책의 발행년과 같은 성격을 띤 발표시점 또는 공표시점을 표시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이 경우 대개 역조명 대신 연호로 표시하였다. 이 저작년표시는 저자명 다음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고, 저자명 앞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기타 특기할 만한 목록기술 사례의 경우, 1) 공저자의 목록기술을 살펴 보면, 주로 대표저자명을 표시한 다음에 ‘등+저작역할어(等+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등+저작역할어(等+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與’자를 삽입하여 두 저자명을 병기한 다음 그 이외의 공저자를 표시하고, 마지막에 ‘等同撰’이라고 표시한 경우, ‘等’자를 쓰지 않고,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저작역할어를 붙이거나, 서술형으로 기술한 경우 등이 있었다. 2) 저작역할이 다른 저자표시가 두 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된 역할의 것을 먼저 적고 부차적 역할의 것을 뒤에 적었다. 3) 동일 유목 내에 동일저자의 독립된 저작이 두 개 이상 나온 경우, 그 서적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열기한 다음 저자표시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때 저자 앞에 ‘右 몇書皆’ 또는 ‘右皆’라고 관기하였으며, 이밖에 그 서적들을 별도의 저록으로 설정한 다음 각각 저자표시를 한 경우도 있었다. 4) 특정 서적과 관련된 후집(後集)이나 속집(續集) 또는 별집(別集)과 같이 보유적 성격을 띤 저작이 나오는 경우, 이들 저작을 한꺼번에 모아서 저자표시를 해준 경우가 있었고, 별도의 저자표시는 하지 않고, 해제에서 해당 저작에 대해 설명해 준 경우도 있었다.

이 『독서지』의 목록기술방식을 고구하면서 당시에 편자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편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이 편찬한 장서목록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12세기 중국의 목록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독서지』의 목록기술방식은 나름대로 통일성을 갖춘 목록기술방식을 설정하여 저록을 작성하였으며, 후대 목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顧宏義. “郡齋讀書誌訂正(1).” 『中華文史論叢』 99(2010. 3). 394.
- 顧宏義. “郡齋讀書誌訂正(2).” 『中華文史論叢』 100(2010. 4). 64.
- 顧宏義. “郡齋讀書誌訂正(3).” 『中華文史論叢』 100(2010. 4). 104.
- 高 蕾. “晁公武『郡齋讀書誌』解題特點及影響－『衢本郡齋讀書誌』讀後有感.” 『青年文學家』 16(2012. 8). 16.
- 龔禮明. “『郡齋讀書誌』收錄小說類書目摭議,” 『圖書館論壇』 5(1993. 10), 95-97.
- 郭書蘭. “私家目錄之璧－晁公武『郡齋讀書誌』.” 『鄭州大學學報』 5(1988. 4), 104-107, 117.
- 金光洙. “井度、趙希弁對『郡齋讀書誌』的貢獻.” 『河南圖書館學刊』 4(31)(2011. 8). 138-139.
- 金正喜. 『阮堂全集』 <<http://db.itkc.or.kr>>.
- 陸 慶. “試析晁公武『郡齋讀書誌』的編纂特色.” 『河南大學學報』 5(42)(2002. 9). 106-109.
- 리상용.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4.
- 孟昭晉. “晁公武及其『郡齋讀書誌』.” 『山東圖書館季刊』 2(1988. 7). 16-18.
- 倪士毅. “宋代目錄學家晁公武和『郡齋讀書誌』.” 『杭州大學學報』 3(1980. 9). 18-21.
- 方誌昭. “晁公武與『郡齋讀書誌』.” 『贛圖通訊』 1(1985. 4). 49-53.
- 徐元南. “송대 문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해서 본 사가목록서에 대한 고찰.” 『중국어 문학논집』 47(2007. 12). 499-521.
- 徐有棨. 『楓石全集』 <<http://db.itkc.or.kr>>.
- 徐澧修. 『明臯全集』 <<http://db.itkc.or.kr>>.
- 成海應. 『研經齋全集全集』 <<http://db.itkc.or.kr>>.
- 孫 猛. “『郡齋讀書誌』淺談.” 『中國索引』 2(4)(2006. 6). 19-22.
- 孫月霞. “『郡齋讀書誌』子部與集部類目的設置.” 『黑龍江史誌』 17(330)(2014. 9). 10-11.

- 孫月霞.“淺議『郡齋讀書誌』類序特點.”『黑龍江史誌』16(209)(2009. 8). 64, 66.
- 楊大忠.“論『郡齋讀書誌』辨偽證據的互補性.”『古籍研究』55-56(2009). 344-354.
- 楊大忠.“論『郡齋讀書誌』的類中類體例.”『淮北煤炭師範學院學報』4(30)(2009. 8). 5-9.
- 吳承學, 黃靜.“『郡齋讀書誌』與文學批評.”『華東師範大學學報』1(2015. 1). 1-13.
- 王曉鳴.“淺談『郡齋讀書誌』.”『山東圖書館季刊』2(2001. 6). 47-48.
- 牛紅亮.“宋代目錄學家晁公武和他的『郡齋讀書誌』.”『圖書館理論與實踐』5(2000. 10). 53-54.
- 劉國珺.“淺論『郡齋讀書誌』在古籍版本學史上的貢獻.”『古籍整理研究學刊』6(1990. 12). 29-32.
-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http://db.itkc.or.kr>>.
- 張 劍.“晁公武及其『郡齋讀書誌』研究綜述.”『西北師大學報』5(42)(2005. 9). 97-102.
- 張素霞.“宋代私家書目『郡齋讀書誌』考析.”『前沿』7(2005. 7). 219-221.
- 田艷艷.“晁公武『郡齋讀書誌』創新目錄學之功.”『河南圖書館學刊』6(30)(2010. 12). 161-162, 168.
- 錢振新.“『郡齋讀書誌』收錄小說類書目摭議.”『圖書館』2(1994. 4). 22-24.
- 丁若鏞.『經世遺表』<<http://db.itkc.or.kr>>.
- 丁若鏞.『與猶堂全書』<<http://db.itkc.or.kr>>.
- 正 祖.『弘齋全書』<<http://db.itkc.or.kr>>.
- 晁 霞.“晁公武畫論選目考—以『郡齋讀書誌』爲中心.”『圖書館學刊』12(2014. 12). 120-123.
- 陳少川.“從『郡齋讀書誌』看晁公武的圖書分類理論.”『圖書館論壇』4(1993. 8). 42-45.
- 崔廣洲.“論『郡齋讀書誌』與『直齋書錄解題』中宋代『春秋』學.”『重慶與世界』3(31)(2014. 3). 51-54.
- 崔國光.“晁公武『郡齋讀書誌』的版本源流和解題特點.”『山東社會科學』4(2001. 9).

63-65.

賀霞. “略論晁公武『郡齋讀書志』在目錄學上的貢獻.” 『圖書館建設』 2(1997. 3). 68-69.

郝潤華, 丁俊麗. “『四庫全書總目』對『郡齋讀書志』的接受與批評.” 『圖書館雜誌』 8(29)(2010. 8). 72-77.

胡建升. “晁公武『郡齋讀書志』的經學思想.” 『社會科學家』 9(173)(2011. 9). 52-56.

胡建升. “晁公武『郡齋讀書志』的史學思想.” 『史學史研究』 4(140)(2010. 4). 33-38.

黃燕婉. “『四庫全書總目』誤引『郡齋讀書志』訂正十則.” 『圖書館工作與研究』 138(2011. 5). 83-85.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http://baike.baidu.com>>.

